

<서평>

『성령해석학: 오순절 관점으로 성서 읽기』

크레이그 S. 키너 지음/송일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727쪽

김동수*

1. 들어가는 말

어떤 해석자든 자신의 렌즈를 가지고 주어진 글이나 상황을 해석하기 마련이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각 해석자는 자신의 전제나 이데올로기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모든 성서해석자가 가져야 하는 공통의 렌즈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쓴 성서해석학 연구서가 바로 키너(Craig S. Keener)의 『성령해석학: 오순절 관점으로 성서 읽기』다.¹⁾ 그에 의하면 신약성서의 모든 저자는 오순절 성령 체험이라는 렌즈로 구약성서와 상황을 새롭게 해석해서 신약성서를 쓴 것이다. 그러기에 현대에 성서를 해석하는 자들도 그들과 동일한 성령 체험으로 성서해석을 할 것이 요청된다고 한다.

키너는 크리스천 성서해석의 공통 렌즈는 오순절 성령 체험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크리스천 중에서 특수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갖는 렌즈가 아니라 초기 교회 모든 성서 저자들과 해석자들이 가졌던 것으로, 후대에 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끼어야

* 평택대학교 교수, 신약학

1) Craig S. Keener, *Spirit Hermeneutics: Reading Scripture in Light of Pentecost* (Grand Rapids, MI: Eerdmans, 2016); 『성령해석학: 오순절 관점으로 성서 읽기』(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하는 렌즈라고 한다. 본고는 이러한 키너의 주장을 비평적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키너는 역사상 가장 두꺼운 분량의 사도행전 주석서를 비롯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등 다수의 신약성서 주석서를 출간했고, 신약성서의 성령론과 여성론, 기적론 등 신약신학 주제의 연구서를 낸 저명한 복음주의적, 특히 오순절/은사주의적 성향의 학자다.²⁾ 이제까지 그의 대부분의 저술이 주석적인 것이었다면, 본서는 그의 주석함의 기저에 있는 해석학적 원리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발간되자마자 학계에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본서를 비평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 성령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책의 서두에서 키너는 본서의 저술 의도를 분명하게 표출한다. 그것은 “성경을 역동적이고 경험적으로” 읽는 것이 정당한 것임을 성서신학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이다.³⁾ 본서의 저술 목적은 오순절 날의 “성령 체험이 어떻게 우리의 성서 읽기를 역동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형성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내는 것이다.⁴⁾

키너가 표방하는 성령해석학은 성서를 해석하는 신학적 렌즈다. 이 렌즈

2) 우리말로 번역된 그의 저술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Craig S. Keener 외, 『IVP 성경배경주석』(서울: IVP, 2010); 『요한복음』(3 vols.; 서울: CLC 2018); 『현대를 위한 성령론』(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바울과 여성』(서울: CLC, 1997); 『NIV 적용주석 요한계시록』(서울: 솔로몬, 2010).

3) 동시에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형성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를 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배경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경험적이고 신학적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이러한 배경에 대한 해석에 지나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서는 한편으로는 성서를 성령 체험에 의해서 읽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도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적으로 성서를 이해하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도전이다. Keener, 『성령해석학』, 34.

4) Keener, 『성령해석학』, 40-41.

는 본서의 부제와 같이 “오순절 관점으로 성서 읽기”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체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본래 성령 체험의 관점으로 기록된 성서는 성령 체험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 모든 크리스천은 오순절 성령 체험의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체험의 관점으로 읽는 성령해석학이라는 렌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본서는 그 신학적 렌즈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6부 18장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제1부에 키너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서를 성령 체험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성경을 성령 체험에 의해 읽는 것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하고, “성서적”이다.⁵⁾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성서 본문을 읽”었다.⁶⁾ 또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직후 한 연설에서 베드로는 성령 체험을 바탕으로 구약성서를 해석했다.⁷⁾ 지금도 어떤 사람이 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오순절 성령 체험은 필수적이다.⁸⁾ 사도행전 인물들과 현재의 해석자들의 “공통의 영적 경험”은 성서해석에 있어 “귀중한 연결점을 제공해준다.”⁹⁾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의 성서해석에 대한 기록이며, 이것은 후대의 성서해석자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다.

제2부에서 키너는 사도행전에 내러티브에 나타난 성령 체험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관점에서 성서를 읽는 것은 다양한 문화를 포괄하는 읽기라고 한다.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통해 다양한 방언이 표출된 것은 성령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방언은 지속적인 교차문화적 선교를 위해 예언적 권능을 부여하는 표지로 기능한다.”¹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임한 것은 그들이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선교를 할 것은 보여주

5) Keener, 『성령해석학』, 95-107.

6) Keener, 『성령해석학』, 105.

7) Keener, 『성령해석학』, 120.

8) Keener, 『성령해석학』, 140.

9) Keener, 『성령해석학』, 123.

10) Keener, 『성령해석학』, 157.

는 것이다. 또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의 실행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타 문화권 출신인 헬라파 사람들을 지도자로 추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면, 성령에 충만한 예수의 제자들은 타문화에 대해서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이렇게 문화적으로 포괄적인 것은 상황화 해석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성서 전체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사도 행전 15장의 사도회의의 결정으로 볼 때 성령 체험한 인물들은 구약성서의 진리를 새로운 문화에 맞추어 상황화해서 해석했다.

제3부에서 키너는 현대 성서해석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본문의 의미의 결정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순절 관점으로 다룬다. 본문의 의미는 본래의 저자가 결정해 놓은 것인가? 아니면 현대의 독자가 결정하는 것인가? 본문의 의미는 본래의 역사적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현대 독자가 본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인가? 키너는 고대의 의미와 현대의 의미 혹은 고대의 의미와 그 적용 중 하나를 배제하지 않고 모두 다 인정된다. 다만 고대의 의미는 현대의 의미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¹²⁾ 우리는 성서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들의 기록을 읽을 수 있고, 현대 독자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전자는 후자의 잣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인정한다면, 현대 독자들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제4부에서 키너는 말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다룬다. 그는 해석학의 핵심이 인식론이라고 말하며, 성령은 계시된 말씀이 해석자들에게 올바르게 인식되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요한복음 16:7-15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의 핵심 역할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키너는 이것을 케리그마적 인식론이라고 말한다. 신약성

11) 그래서 “오순절 관점으로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말씀하시고 모든 문화에 접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양한 문화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들의 여러 측면을 더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순절 관점에서 성서 읽기는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며, 서로 나눔을 행하는 데 충분한 만큼 보편적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Keener, 『성령해석학』, 170)

12) Keener, 『성령해석학』, 248.

서 전반에 걸쳐 성령 인식론이 편만하게 등장한다(행 6:3, 10; 고전 2:13; 엡 1:17).¹³⁾ 그런데 타락한 세계관에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전달되지 않으며, 오직 성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러한 인식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마음과 일치하는 믿음”이다.¹⁴⁾

제5부는 성서해석에 있어서 신약성서 자체가 제시하는 해석 모델을 제시한다. 하나는 예수의 해석 모델이다. 예수는 구약성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리로 한다. 첫째, 그는 구약성서의 원리를 상황을 전제하여 해석한다. 둘째, 그는 율법 해석에 있어서 율법 자체는 존중하지만, 율법 안에 있는 핵심적 진리를 따라서 율법을 해석한다. 셋째, “예수는 성서를 자신의 시대에 적용한다.” 넷째, 예수는 율법을 인정함과 아울러 율법이 주어진 정신까지 말한다. 신약성서 내에 있는 성서해석의 중요한 다른 하나의 해석 모델은 바울이 제시한 것이다. 그는 율법이 칭의를 위해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의 도덕적 원칙들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본다.¹⁵⁾

제6부에서 키너는 성령해석학을 렌즈로 오순절 관점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자들은 누구인가를 묻는다. 그는 그것을 역사에서 형성된 어떤 집단이나 해석 공동체와 동일시 하지 않는다. 먼저, 그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서 경험적 읽기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 해석자의 부류에 넣을 수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그는 건전한 해석을 하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본다. 그가 제시하는 그들은 성서를 통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 있는 하나님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이다.¹⁶⁾

결론적으로, 키너는 자신이 본서에서 제시하는 성령해석학은 특정한 교파나 신앙 운동의 성서해석학이 아니라 하나의 “기독교적 해석학”이라고

13) Keener, 『성령해석학』, 365.

14) Keener, 『성령해석학』, 368.

15) Keener, 『성령해석학』, 488.

16) Keener, 『성령해석학』, 560-605.

한다. 오순절 경험으로 성서를 읽는 것은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보편적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기독교 해석학은 모두 성령해석학이 되어야 한다. 성령해석학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적 해석학이 아닌 것이다.¹⁷⁾

3. 본서의 공헌과 이후의 과제

우선, 본서는 그 구성과 논리 전개에 있어서 그리 산뜻하지 않다. 전체 구조에서 핵심 주장인 성령 체험에 의한 성서 해석의 정당성 부분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논의 중 본서의 핵심 주제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¹⁸⁾ 그는 저술 목표를 성서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신학적 렌즈를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본서를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 신학적 렌즈 찾기를 벗어난 일반적인 해석학적 원리에 대한 논의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일반 성서해석의 단골 메뉴인 저자의 의미와 독자의 의미에 대한 관계와 신약의 율법 해석에 대한 것 등이다. 물론,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것이 오순절 관점의 성서해석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연결점은 느슨하다. 본서의 저술 목적이 성령해석학이라는 신학적 해석 렌즈를 찾는 것이라면, 이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저술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비록 논리 전개 방식에 아쉬움이 있지만, 본서는 다른 성서해석학 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방법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술서로서 본서의 특이점 중 하나는 저자는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 자주

17) Keener, 『성령해석학』, 610.

18) 이것은 키너가 책을 쓰는 경향성의 하나로 보인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대 분량의 사도행전 주석을 쓴 사람이며, 기적에 관한 연구서도 2권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자료는 물론 2차 자료를 풍성하게 언급하며 그 내용에 이론과 실천을 포함한다. 어쨌든, 본서를 읽으면서 그의 논리 전개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바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개인 체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서해석에 있어서 성령 체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성서 주석과 논리만이 아니라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논증한다. 이러한 논증 방식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명히 갈린다. 이러한 방식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간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양념처럼 사용하기에 이러한 방식이 신선하다고 볼 수도 있다.

본서의 가장 큰 공헌은 성서해석에 있어 핵심적인 원리를 성서 자체 내에서 추출해 내려고 시도한 것이다. 현대 철학적 해석학과 이에서 영향을 받은 성서해석학에서는 공히 성서해석학의 원리를 성서 밖에서 끌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로 저자를 죽이는 해석학이 등장하고, 때로는 본문을 해체하는 해석학도 나오며, 독자를 신으로 하는 해석학도 등장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서 나온 해석학적 렌즈들이다. 현대는 해석에 있어서 독자가 중요하고 독자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본서는 신약성서 저자들의 공동 경험인 성령 체험과 해석의 관계를 다루었다는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 동안 신약성서 첫 저자들과 독자들은 성령 체험에 근거하여 책을 저술하고 또 그런 경험을 전제로 성서해석을 했다는 것을 간과했었는데, 본서는 그러한 점을 잘 지적하고, 성령 체험에 근거한 해석학을 시의적절하게 제안했다.

성서해석학 연구서로서 본서의 장점을 꼽자면 **본서는 오순절 관점으로 성서 읽기를 표방하지만, 교파나 신학적 입장으로서는 오순절파의 성서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일반 성서해석학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류 기독교의 성서해석이든 아니면 소수파의 성서해석이든 각 저술은 각각의 독자적인 해석학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그런 해석학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다른 입장에서 서 있는 해석을 부정하고 자신의 것만 긍정하는 해석학을 전개했다. 그런데 본서는 복음주의 성서해석학과 오순절주의 해석학을 다 아우르는 에큐메니컬한 성서해석학이다. 물론, 이런 입장의 저서에 대해서는 양 진영에서 모두 비판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본서가

출간되었을 때, 오순절 진영의 리뷰에서는 이러한 그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특히 오순절 경험을 오순절과만의 특수한 경험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오순절과의 성령해석학이라는 것이 따로 필요 없다고 하는 저자의 주장에 오순절 운동 진영의 학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키너는 복음주의와 오순절주의에 대한 에큐메니컬 입장에서 본서를 저술하고 있지만, 그의 쓰디쓴 비평은 주로 그가 속한 오순절파에 향해있다. 그는 복음주의의 권 중 은사증지론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복음주의의 성서해석에 대한 그의 입장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복음주의의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에 대해서 그는 전반적으로 동조한다. 하지만, 오순절과 중 성서를 문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으면서 지나친 주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비판은 준엄할 정도다.

본서의 또 다른 중요한 공헌은 본서는 오순절 관점에서 성서 읽기를 주창하면서, 단순히 성령론적 주제에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내리 티브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해석학적 원리를 뽑아냈다는 데 있다. 그에 의하면 오순절 관점의 성서해석은 타 문화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이며, 구약성서 해석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에 그 내용을 상황화한 것이다. 성령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며 구약의 원리를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상황화하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본래의 저자의 의미에 기반을 두면서도 그것을 현재의 문화나 상황에 맞게 재상황화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경(canon)과 문화(culture)의 문제인데, 그는 정경이 잣대이지만 그 잣대가 성령을 통해서 문화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키너는 현대 서구 사회가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영, 기적,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 오히려 제3 세계의 세계관에서는 성령이 자연스럽게 수용되는데, 그 세계로부터 서구 세계는 성서해석에 있어서 가치 있는 통찰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성령을 통해 성서의 메시지를 적절하게

상황화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본서는 위와 같은 공헌이 있지만, 부족한 점 중 하나는 저자가 서론에서 목표로 세운 오순절 성령 체험의 관점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충분히 찾아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저자는 사도행전 2장과 그 이후의 내러티브를 통해 그 근거를 간단히 제시했고(본서 제1부), 나중에 성령과 인식론 부분에서 신약성서가 성령을 통한 하나님 말씀 인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본서 제4부). 이 부분이 본서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없고, 그것을 지지하는 구절들을 주로 열거하고 있다. 키너는 본서에서 자신의 최대 관심사가 성서가 제시하는 인식론이라고 해 놓고,¹⁹⁾ 정작 그것 자체에 대해서 천착하지는 않았다.

4. 나가는 말

키너는 본서에서 모든 성서 해석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해야 함을 천명한다. 그것은 특정한 교파의 해석 원리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의 성서 해석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서해석학 분야에서 티슬턴(Anthony Thieselton)의 저서 『두 지평』이 철학적 해석학을 대표하고,²⁰⁾ 벤후저(Kevin Vanhoozer)의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가 미국 복음주의적 해석학을 대표한다면,²¹⁾ 키너의 『성령해석학』은 오순절/은사주의적 해석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²²⁾ 하지만 키너의 성서해석학은 어느 종파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 있으며 에큐메니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 Keener, 『성령해석학』, 47.

20) Thieselton, 『두 지평: 성경 해석과 철학적 해석학』.

21) Kevin Vanhoozer,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서울: IVP, 2003).

22) 이러한 분석은 키너의 성령해석학을 평가하면서 올리베리오(Oliverio, Jr.)가 한 것이다. L. William Oliverio, Jr., “Reading Craig Keener on Spirit Hermeneutics: Reading Scripture in Light of Pentecost,” *Pneuma* 39(2017), 126-145.

본서의 최고의 공헌은 성서해석에 있어 성서를 올바로 인식하는 방법을 성서 외에서 끌어온 원리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성서 내에서 그 원리를 끄집어내려고 한 것이다. 그 동안 학자들은 이 문제를 교리적인 용어인 조명(illumination)이라는 용어로 흔히 설명해 왔다. 그렇다면 성서 자체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용어와 방식으로 설명하나? 키너는 사도행전 2장에서의 오순절 성령 체험은 제자들의 성서해석에 있어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었다고 주창한다. 이것을 발견하고 주창한 것이 그의 공헌이다. 하지만, 키너의 주장이 확고해지려면 신약성서 전체에서 성령 체험과 성서해석의 정당함을 말하는 신약 주요 저자들의 사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차후에 저자 혹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본서가 성령해석학을 주창한 것이기에 그 주창 자체만으로도 큰 공헌을 한 것이다.